

## 개·고양이의 行習 (behaviour) 에 관련된 臨床診療 (4)

李 芳 煥\*

### 1. 家庭訓練(Housetraining)

① 개를 기른 畜主 입장에서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개가 집안에서 放尿 또는 排糞을 못하게 하는 가정훈련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손쉬운 방법은 별도의 개 집에서 개를 기르는 방법이다. 개는 원래 그의 거처를 깨끗이 유지하려는 天性이 있다. 새끼를 낳으면 母犬은 갓난 새끼의 肛門과 外部生殖器 근처를 핥아줌으로써 새끼의 排尿와 排糞을 자극한다. 처음에는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의 배설물을 母犬이 먹어 없애거나 또는 외부로 버린다. 새끼는 4주경에 달했을 때 排尿와 排糞을 위해서 보금자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② 가정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배설해서는 아니되는 곳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배설하는 곳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農場과 같은 야외에서 기른 개는 야외에서 排泄(排尿와 排糞)하는 경험밖에 없다. 이러한 개를 집안에서 기르게 될 때는 야외배설의 家庭訓練에 쉽게 적응될 수 있다. 畜主의 감시 없이 집안의 개 집에서 가두어 기를 때 그 개는 최대한으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개 집에서 배설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 그러므로 畜主는 적당한 시기에 개를 석방하여 야외로 데

리고 나가서 배설하게 하고 즉시 포상을 한다. 만일 개집이 없이 가두지 않고 집안에서 개를 기를 때는 畜主는 계속 개를 감시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배설의 기회를 주고 배설할 때 마다 즉시 포상을 한다. 만일 집안에서 배설을 하려는 표정이 보이면 신속히 적당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배설이 끝나면 포상을 해야 한다.

③ 만일 집안에서 배설을 진행하고 있는 개를 발견했을 때에는 심하게 꾸짖음과 동시에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배설하게 해야 한다. 배설이 끝난후의 견책(처벌)은 오히려 공포行習의 유발과 같은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④ 長期間 계속 가두어 길러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집안에서 배설을 하게 된다. 이 경우의 개집의 규모는 가상적인 칩실, 거실(서서 돌아다니는) 및 배설실을 구비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나 개 몸체의 길이의 4~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면 개 스스로가 자기 거처의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개집에 가두어 기른 개는 야외배설의 충동을 더욱 빈번히 일으킨다. 또 개집이 없어 자유롭게 집안에서 기른 개는 집안에 배설하는 것 같은 실수를 거의 범하지 않는다.

### 2. 家內 放尿行習(Urine marking in the house)

\* 全南大學校 獸醫科大學

家庭訓練을 받지 않은 수캐에서 집안에서 放尿하는 行習이 계속되는 例가 흔히 있다. 수캐의 放尿行習에 영향을 미치는 去勢의 效果, progestogens의 效果(蕃殖性行習 참조) 또는 行習轉換訓練(雌性間攻擊行習) 등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된 바 있다.

### 3. 家庭訓練(習得)의 消失(Loss of house training)

① 근심(anxiety) 또는 情緒장애가 있는 개는 가정훈련이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放尿또한 排糞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곧 가정훈련에서 얻어진 習得行習이 소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meprobamate, benzodiazepine 또는 amitriptyline 또는 progestogens와 같은 不安을 완화하는 藥을 일시적으로 쓰면 家內 排泄行習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畜主不在時에 파괴行習이 있을 때 쓰이는 간헐적 포상법(파괴적 行習의 中絶의 항 참조)을 적용하여도 畜在不在時에 집안에서 배설하는 行習을 교정할 수 있다. 또 다른 方法으로는 개에 배설에 관한 家庭訓練을 시키는 일상적인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② 어떠한 疾病때문에 家庭訓練에서의 習得行習이 소실된 개는 疾病의 原因이 교정된 후에도 집안에서 배설하는 行習이 나타나,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위에서 설명된 간헐적 포상법 또는 家庭訓練과정을 다시 실시하여 그 行習을 교정해야 한다.

## IX. 고양이의 주요 異常行習

### 1. 고양이 異常行習의 出現頻度(Incidence of behavioural problems in cats)

小動物 臨床에 있어서 愛玩動物의 行習問題로 診療를 의뢰받는 건수는 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양이에 관한 것은 약 10% 이하에 불과하며 또한 고양이의 安(藥)死術의 의뢰 건수중 異常

行習 때문에 건강한 고양이의 安死術을 의뢰한 건수는 약 8% 정도로 몇 사람의 小動物 臨床家들에 의해서 보고된 바 있다. Mugford(1983)에 의하면 고양이에서 行習의 問題로 相談에 응한 총 100例의 고양이 중 異常行習의 종류별의 比較頻度は 다음과 같다.

변태적 排尿-排糞行習	31%	} 54%
直立放尿行習	23%	
상호간 攻擊行習	26%	
自害行習	7%	
恐怖行習	4%	
먹이를 휘젓는 行習	3%	
기타	6%	

이것을 보면 排泄(排尿와 排糞) 行習과 관련된 문제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의 攻擊行習이다.

### 2. 변태적 排尿-排糞行習(Inappropriate urination and defecation)

일부 野生고양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고양이는 天性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糞尿를 배설하고 배설후에는 다른 肉食動物의 눈에 띄지 않게 분노를 덮어버리는 習性이 있다. 대다수의 집 고양이는 排泄상자(便器) 또는 흙바닥에 일정하게 배설하나 예외로 배설장소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小動物 臨床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排泄行習의 異常은 통상적인 배설行習으로부터 갑자기 변태적 배설行習으로 바뀌어졌다는 例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드물게 배설상자를 이용하는 訓練이 잘 되지 않는 다던가 또는 설사病으로 인해서 웅단짚개위에 배설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排泄行習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要因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1) 社交的 適應의 부족

집안이나 이웃에 사는 다른 고양이, 다른 종류의 동물 또는 낯설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이에 慢性 社交性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排泄行習의 異常이 생

길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예측되면 수의사는 고양이 몸체에서 싸웠던 자국(scars)을 찾아야 하고, 고양이의 情緒의 변화에 관해서 畜主에게 질문해야 한다.

#### (2) 바닥깔개에 대한 嗜好性이 맞지 않을 때

고양이는 濕하거나 얼은 흙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갑자기 배설장소를 바꾸게 된다. 이는 곧 氣候의 변동도 배설行習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된다. 또한 고양이는 배설상자의 바닥깔개의 냄새에 대한 嗜好性이 예민하므로 배설行習의 訓練中에 흙, 모래 또는 여러 종류의 合成짚짚 등을 교대로 시험하여 고양이의 嗜好에 맞는 것을 택할 필요가 있다.

#### (3) 깔개 下層物에 대한 嗜好性이 맞지 않을 때

배설상자(便器)의 깔개 下層物은 배설이 끝난 후의 배설물을 덮는 行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下層物로서 플라스틱 또는 樹指類(linolium)과 같은 표면이 매끄러운 물질, 흙과 모래와 같은 과립성 물질 또는 웅단 등은 그 上層의 깔개의 종류나 장소에 무관하여 고양이의 개체에 따른 嗜好性이 다르다. 實例를 들면, 어느 고양이는 배설상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단을 계속 할켄 후에 웅단위에 排糞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下層物을 웅단조각으로 代置한 결과 배설상자 안에서의 異常排糞行習으로 나타났다.

#### (4) 장소에 대한 嗜好性이 맞지 않을 때

고양이는 원래 먹이가 있는 곳의 근처에서는 排糞, 排尿 또는 直立放尿 등의 배설行習을 취하지 않는 것이 常例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상자를 부엌안의 고양이 밥그릇과 나란히 놓아두게 되면 배설場所를 바꾸는 異常 배설行習이 일어난다. 또한 배설상자가 좁거나 또는 不安感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을 때도 동일한 異常行習을 일으킬 수 있다.

#### (5) 냄새에 대한 嗜好性이 맞지 않을 때

고양이의 糞尿의 냄새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다. 그 相互性의 기전은 不明이다. 어떤 고양이는 배설상자와 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냄새가 없

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러한 고양이는 그곳에서 배설하는 버릇이 남아서 청소후에도 그곳으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고양이는 糞尿에 오염된 곳을 피하면서 배설상자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버릇이 있다. 이러한 고양이는 집안의 여러 장소에 배설하는 異常排泄行習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양이를 위해서는 집안의 여러 곳(방마다 하나씩)에 깨끗한 배설상자를 놓아둘 필요가 있다.

#### (6) 習得訓練을 필요로 하는 異常排泄行習

어떤 고양이는 家具의 뒷편 또는 내부와 같은 주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排泄場所를 마련하여 배설하는 惡習이 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習得訓練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環境에서 케이지에 고양이를 가두어 기르면서 그속에 배설상자를 넣고 이것을 이용하여 배설하도록 한다. 새 環境에서 배설상자에 배설하는 習性이 확인되면 다음에는 고양이를 다시 집안으로 들게 하고 그 배설상자는 그전에 숨어서 배설했던 곳 근처에 놓는다. 이 배설상자에서 계속 2~3주간 배설한 것이 확인된 후에는 점차로 배설상자를 1일에 몇 cm 씩 이동하여 점진적으로 畜主가 원하는 곳으로 배설상자를 옮긴다.

#### (7) 遺傳性 영향

고양이의 糞尿排泄行習은 개체에 따른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극단적인 例로서 배설상자의 이용을 거부하는 品種(Persian cats)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배설行習에 영향을 미치는 遺傳的 要因에 관해서는 아직 그 근거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 3. 直立放尿行習(Spraying)

#### 發生原因

直立放尿는 고양이의 집단생활에서 볼 수 있는 正常行習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非正常의 排尿行習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어느때에 한번씩 直立放尿를 하지만, 홀로 집에 있을 때는 거의 直立放尿를 하는 일이 없다.

直立放尿는 고양이 집단생활에 있어서 支配性

(強勢계급)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고양이와 경쟁 상태에 있을때에 나타나는 특수한 行習이며 고양이 집단내의 고양이의 수가 많을수록 直立放尿行習의 발생빈도도 높아진다.

그밖의 일시적인 直立放尿行習의 要因도 많이 있으나 가장 分明하게 나타난 것은 蕃殖과 관련있는 直立放尿行習이다. 즉 암컷이 發情하면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흔히 直立放尿를 한다. 마찬가지로 非去勢의 수코양이도 發情中의 암코양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直立放尿를 한다.

### 鑑別診斷

① 고양이가 直立放尿시에 취하는 보편적인 姿勢는 일상적인 排尿 또는 排糞姿勢와는 달리, 直立한(똑바로 수직으로 선) 자세로 꼬리를 높이 올리고 옆면서 尿를 水平으로 射出한다. 일상적인 排尿후에 행하는 行習 즉 바닥을 발로 핥거나 배설물을 묻어버리는 行習은 直立放尿시에는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直立放尿와 일상적인 웅크리는 자세의 排尿와의 사이의 中間型에 해당하는 排尿姿勢를 보일때가 더러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어느쪽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鑑別法은 排尿量을 기초로 하여 1회 排尿量이 1ml 이하일 때는 直立放尿(spraying)로 그리고 20ml 이상일 때는 일상적인 排尿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② 下敷排尿路의 疾病에서는 排尿시도를 빈번히 하면서 排尿量의 감소와 더불어 變態적 排尿姿勢를 취하므로 直立放尿와 혼동되기 쉽다. 이때는 尿檢査와 동시에 病歷청취에 의해서 鑑別診斷해야 한다.

### 治療

直立放尿行習의 정지 또는 교정에 대한 豫后는 매우 良好한 편이다. 그러나 모든 原因에 대처할 수 있는 公同적인 治療藥은 없으며 따라서 原因에 따라 治療法을 선택해야 한다.

① 집단생활 스트레스(social stress) : 다수의 고양이가 한 집안에서 동거할 때 일어나는 直立放尿行習은 逮된 고양이를 서로 분리하여 사육하면

된다. 집단생활 stress는 자기 집단이외의 이웃집 고양이 또는 野生고양이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침범하여 서로 싸우는데서 유래되는 경우도 있다.

② 호르몬療法 : 直立放尿는 암컷에서 보다 수컷에서 그리고 去勢수컷에서 보다 非去勢수컷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行習이 性 hormone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수컷을 去勢하면 약 50%에서 直立放尿行習이 즉시 중지되고 나머지 3분의 1도 그후에 정지된다. 去勢암고양이도 直立放尿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암컷의 發情中에만 直立放尿를 하는 경우에 卵巢切除를 하면 수컷의 경우와 같은 교정효과가 있다.

Progestogens中에서는 megestrol acetate(MA)의 經口투약 또는 medroxy progesterone acetate(MPA)의 注射가 直立放尿行習의 교정에 有效하게 쓰인다. 이 藥劑의 작용기전은 不明이나 아마도 抗性腺 자극 效果보다는 오히려 非特異的 鎮靜效果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들 약제는 高用量으로 적용할 때 直立放尿의 교정에 有效하다. 따라서 虛弱한 개체에 적용할 때 또는 장기간 계속 투약할 경우에는 심한 副作用이 염려된다. 그 副作用은 주로 非去勢암고양이의 生殖器 장애로 나타나며 특히 MPA는 乳腺에 작용하는 강한 發癌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副作用이 일어났을 때는 MA는 經口투약을 중단하면 되지만 MPA의 경우는 長期 지속성 用量의 1회 注射이므로 별 도리없이 閉塞해야만 하는 결점이 있다. MA는 2.5mg/day의 經口투약을 5日間 계속한 다음 투약을 중지하고 관찰하여 效果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5mg/day의 經口투약을 5日間 더 계속한다. 그리하여도 效果가 없을 때는 藥用量을 最低용량으로 줄여 새로 투약을 계속한다. MPA는 MA로 效果가 없는 고양이에 50~100mg의 用量으로 단 1회 皮下 또는 筋肉注射를 실시하면 된다. MPA로 일단 效果가 나타나면 그 效果는 수일에서 부터 수개월간 지속된다.

③ 習得訓練 : 어느 고양이는 집단(공동) 생활과 같은 分明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時間과 일정한 場에서 時間-場所 特異性的 直立放尿行習을 보인다. 이 行習은 처벌법에 의해서 다소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 處罰法은 매질과 같은 심한 물리적 처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어 또다른 異常行習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直立放尿를 할 때 물을 뿌려 처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일정한 場所에서 直立放尿를 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方法은 그 場所 근처에서 고양이를 기르면서, 그 주위를 고양이 싫어하는 불쾌한 환경으로 꾸며주는 것이다.

④ 情緒스트레스 : 소수예에서는 慢性스트레의 하나의 病狀으로 생각되는 直立放尿行習을 보인다. 이것은 물론 집단生活에서 오는 스트레스例와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에는 추측되는 stress의 原因을 제거하는 한편 藥物療法으로서는 diazepam(2mg/day)의 經口투약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神經安靜劑도 개체에 따라서는 더욱 有效할 것이다.

⑤ 尿臭除去 : 고양이의 尿에는 심한 惡臭를 풍기는 어느 成分이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洗劑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고 장기간 惡臭를 풍긴다. 어떤 고양이는 일정한 곳에 放尿를 통한 냄새표시(urine mark)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放尿行習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洗劑나 脫臭劑로 放尿場所의 냄새를 철저히 제거하거나 또는 고양이의 嗅覺除去劑術을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다.

#### 4. 攻撃行習(Aggression)

攻撃行習이 있는 고양이는 빠른 속도로 다른 고양이, 개 또는 사람을 급습하여 出血性的 咬傷과 擦傷을 입힌다. 腦의 실험적 자극 또는 病巢의 발견을 통해서 알려진 고양이의 攻撃性을 지배하는 中樞神經系의 부위는 側頭葉(temporal lobe), 邊練系(limbic system) 및 視床下部(hypothalamus) 등이다. 이들 부위에 腦腫瘍과 같은 病巢가 생기면 病的인 攻撃行習이 나타난다. 고양이의 攻撃行習은

그 발생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型으로 분류된다.

##### (1) 雄性間攻撃行習(inter-male aggression)

發情한 암고양이가 있을 때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코양이끼리 심한 싸움이 벌어진다. 수코양이를 去勢하면 싸움의 정도와 빈도가 신속히 감소된다.

##### (2) 領域防禦攻撃行習(territorial aggression)

非去勢수코양이, 去勢수코양이 또는 암코양이는 모두 다같이 그들의 領域을 防禦하기 위해서 또는 領域을 擴大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習性이 있다. 같은 집안에서 두마리의 고양이가 서로 領域 싸움을 할 때는 서로 寬容性이 생길때 까지 짧은 기간동안의 progestogen 療法을 실시한다(直立放尿行習 참조).

##### (3) 母性攻撃行習(maternal aggression)

새끼를 가진 어미 고양이가 사람을 攻撃하는 일은 드물지만 개를 불의에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일은 아주 많다. 그러므로 같은 집안에서 함께 개를 기를 때는 주의해야 한다. 가끔 고양이에서도 産后에 性格의 변화를 일으킨 경우가 있으며 이는 體内の 호르몬의 변화 또는 礦物質의 불균형 특히 低칼슘血症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産后의 어미 고양이에서 攻撃性 또는 食仔病(cannibalism)의 發作이 일어나면 이점을 참고하여 治療를 시도해야 한다.

##### (4) 恐怖유래 攻撃行習(fear-induced aggression)

낮설은 사람에게 속박(구속) 당하거나 外科手術을 받을 때와 같은 긴장된 환경에 직면할 때 恐怖유래의 攻撃行習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양이를 온순하게 다루어야 한다.

##### (5) 疼痛유래 攻撃行習(pain-induced aggression)

다른 動物에서도 그러하듯이 고양이에서도 疼痛이 공격行習을 유발하는 중요한 要因이 된다. 이와 같은 疼痛유래 공격行習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고양이에게서 가장 흔히 물린다. 疼痛에 대한 忍耐力은 개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疼痛이 있는 고양이

를 접촉할 때는 부드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6) 習得性 攻撃行習(learned aggression)

習得性 공격行習은 거의 모든 예에서 다른 고양이나 개 또는 사람을 攻撃하여 그 결과 그 고양이에 게 어떠한 利得(먹이 포상과 같은)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때 그와같은 공격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主人의 발목을 툭툭 치며 놀이를 청할 때 主人은 무심코 먹이를 주거나 또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포상을 하게된다.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됨에 따라 그 고양이는 攻撃行習으로 이행된다. 빠른 동작의 攻撃行習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主人은 흔히 精神神經病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習得性 攻撃行習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環境에서 가두어 기른 후 석방해 주는 방법이 있다. 때로는 공격行習을 취할 때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은 직접 處罰法에 의해서 또는 고양이의와 社交 접촉을 거절(등한시)하는 것과 같은 간접 處罰法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교정될 수 있다.

#### (7) 捕食行習(predation)

고양이의 捕食行習(사냥을 하는 버릇)은 本能的인 것이므로 攻撃行習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오히려 놀이(장난), 공격 및 捕食을 겸한 일종의 混成行習(hybrid behaviour)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行習에 遺傳性 素因과 어미고양이로부터의 習得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일단 이 行習이 능숙해지면 먹이의 필요성에 의한 것 보다는 오히려 常習的인 行習으로써 사냥을 하게된다. 鳥類나 다른 動物에 대한 과도한 捕食行習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處罰法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 방법보다는 방울이 달린 목걸이를 안착해주는 방법이 더욱 效果的인 일 것이다.

#### (8) 腦疾病에 기인한 攻撃行習(aggression caused by brain disorder)

서두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側頭葉, 邊練系 및 視床下部에 腫瘍이 생기면 病的인 攻撃行習이 나타나

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위는 視床下部이며 그 중에서도 복측의 내측에 腫瘍이 생겼을 때는 극심한 공격行習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視床下部에 腫瘍이 생겼을 때는 공격行習 이외에 暴食, 多飲 및 運動失調와 같은 다른 異常行習도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감별진단을 잘 하여 도태(安樂死)를 하는 길 밖에 없다.

#### (9) 遺傳性 攻撃行習(genetic aggression)

버어마系的 고양이(Burmese cat)는 다른 品種의 고양이보다 攻撃性的인 遺傳性 素因이 강렬한 것으로 小動物 臨床家의 경험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이 품종의 고양이는 평소에 사이 좋게 지냈던 동료들에 대해서 돌연한 攻撃性 發作을 하며 그 고양이에서 이어진 같은 血統의 고양이에서도 동일한 강렬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10) 攻撃行習의 治療(treatment for aggression)

고양이의 攻撃性 行習의 완화를 위한 療法은 주로 生殖線切除術(gonadoectomy)을 포함한 內分泌療法(endocrine therapy)이 이용되고 드물게 家事(살림살이) 및 環境의 변경 또는 특이 교정訓練法 등도 이용된다. 內分泌療法으로는 progestogens 요법(直立放尿行習 참조)이 주로 사용된다. 이 요법은 같은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끼리 서로 싸울 때 특히 많이 이용된다. 攻撃性을 억제하기 위한 megestrol acetate(經口투약用 progestogen)는 初回用量을 1日 1回 5mg/kg으로 높여야 하며 그후 점차로 감량하여 공격성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 經口 투약한다.

### 5. 自害行習(Self-mutilation)

고양이의 自害行習은 다음 2가지로 나누어진다. 自害行習은 神經性 疾病 또는 皮膚疾病에서 유래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自害行習이 문제가 된다. 自害行習이 있는 고양이는 쳐다보는 主人을 위협하거나 또는 수의사의 診療행위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

#### (1) 꼬리 쫓는 行習(tail chasing)

이 버릇은 고양이의 正常的인 놀이의 변태적 습성으로 대부분의 고양이는 자기의 꼬리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꼬리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심하게 물어뜯어 상처와 이차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이 넓은 목걸이(Elizabethan collar)를 걸어주면 꼬리를 볼 수 없게 되어 꼬리 쫓는 버릇이 없어진다. 또하나의 方法은 斷尾術을 실시하는 것이다.

### (2) 털 뜯는 行習(excessive grooming)

일부의 고양이는 正常的인 털 핥는 行習이 과장되어 皮膚로부터 털을 뽑는 異常行習을 나타낸다. 특히 삼색의 고양이(Siamese cat)에서는 등쪽에서 左右대칭적인 脫毛가 나타난다.

털 뜯는 行習을 포함한 모든 自害行習의 根本原因은 어떤 外部環境 또는 外部動物과의 접촉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實例를 들면, 2세의 거세한 삼색고양이가 옆집 사냥개의 습격을 받은 후부터 갑자기 그의 등에서 털 뜯는 行習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外出을 싫어하면서 主人에게만 의지하는 버릇도 나타났다. 이때 털 뜯는 국소에 쓴약(苦味劑)을 발라주었으나 털 뜯는 버릇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primidone(mysoline: 독성이 약한 진경제) 요법으로 有效하였다. 즉 primidone 初回用量을 100mg(1日, 1回)으로 하여 經口투약하고 다음날부터 점차 減量하여 10日 후에는 1日 25mg으로 되게 하였다. 이 用量으로 그후 계속해서 30日間 투약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投藥期間中에는 主人과 고양이가 같은 室內에서 함께 거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결과 털 뜯는 行習이 1주일 내에 중지되었다. 그러나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또는 장기간 홀로 있게 할 때는 중간에 가끔 털 뜯는 行習이 재발되기도 하였다.

## 6. 異常食事行習(Disturbed feeding behaviour)

異常食事行習은 疾病 상태에서 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疾病상태가 아닌 生活行習 유래의 異

常食事行習에 관해서 논술한다.

### (1) 食慾不振(inappetence)

疾病상태와 관계없는 食慾不振은 가끔 生活習慣의 불편에서 야기되는 情緒스트레스에 기인되는 수가 있다. 즉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와의 사교적 애착심(social attachment)에 손상이 오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主人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食事を 하게 될 때 또는 친숙했던 동료 고양이가 죽어 없어졌을 때 상당기간(약 2주) 食慾不振 또는 全廢를 경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이 다른 새 가정으로 옮겨 일시적으로 사육하면 이전에 얻어졌던 사교성 애착심이 점차로 감소되어 다시 먹기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드물게 藥物療法(diazepam 1~2mg/day의 經口투약)이 有效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vitamin B-complex의 주사로 식욕이 개선될 때도 있다.

### (2) 肥滿症(obesity)

집 고양이의 경우는 主人이 맛있는 食事を 過量 급여하여 일어날 수 있으나 이보다는 視床下部의 장애에서 일어나는 內因性要因, 暴食의 習性 및 內分泌상태 등이 더욱 중요한 原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량급여가 原因일 때는 無氣力상태로 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먹이를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

### (3) 食性的 變化(depraved appetite)

삼색 고양이(Siamese cat)는 때때로 織物(옷감), 노끈 털, 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異物을 즐겨 먹는 食性的 變化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腸閉塞을 일으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異物을 먹는 行習을 교정하는 方法은 (i) 異物이 있는 곳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ii) 異物을 먹으려 할 때 물총을 쏘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벌훈련법) (iii) 진정제(sedative) 또는 진정제(anticonvulsants)를 투약하는 藥物療法 등이 있다. 약물 요법으로 Primidone(mysoline) 50mg/day를 經口投藥하여 3마리중 2마리에서 교정效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삼색 고양이의 異物섭식行習은 필수 脂肪酸의 결핍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리적 보고가 있기는 하나 이보다는 家族性 유전경향에 기

인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믿고 있다.

## 7. 家具・織物 할퀴는 行習(Furniture-fabric scratching)

이 行習은 발톱의 脫落角化鱗屑을 제거함과 동시에 냄새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行하는 일종의 正常 行習이라 할 수 있다. 이 行習이 일단 成立되면 교정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 버릇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훈련용 기둥을 설치하여 어릴때부터 이것을 할퀴도록 하는 훈련방법이 가장 상책이다. 그밖에 家具에 구산제(repellants)를 바르는 方法, 家具를 닦아서 고양이 냄새를 제거하는 方法, 발톱을 除去하여 가구에 기어오르는 能力을 제거하는 方法등도 있으나 그 효과는 보증할 수 없다.

## 8. 社交的 愛着行習의 異常(Problems of social attachment)

① 同種의 동물, 異種의 동물 또는 사람에 대한 고양이의 社交的 愛着行習은 2~16주령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에게 충분히 적응되어 愛情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시기는 강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 10주령 이상이 되었을 때이다.

② 그런데 가끔 한 가족중의 어느 특정한 만을 排斥하는 異常愛着行習을 보이는 고양이가 있다. 이것은 그릇된 애무행위에 대한 반감이 아닌 납득할 수 없는 迷信的인 行習과 같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람을 차별하는 異常愛着行習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배척당하는 사람이외의 가족들이 고양이의 愛着行習을 적게 받아들임으로써 고양이의 愛着心이 배척당하는 사람에게 쏠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양이의 먹이 제공도 배척당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③ 主人에 대한 과도한 愛着行習을 보이는 고양이가 있다. 이러한 고양이는 主人과 떨어져 있을 때 情緒의 변화로서 不安, 食慾감퇴, 自害行習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主人과 고양이가 일정기간

別居하는 것을 간헐적으로 되풀이하는 교정訓練을 실시해야 한다(自害行習 및 異常食事行習 참조).

## 9. 習得 유래의 여러 異常行習(Miscellaneous problems of learned origin)

고양이는 원래 유능한 習得소질을 가지고 있다. 日常生活에서 고양이에게 自由를 주고, 먹이를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는 사람이나 다른 動物에게 접촉(社交)하게 해주는 동안 이것이 모를지 고양이에게 習得性 行習을 형성하게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치않는 習得性 行習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큰 소리로 꾸짖거나 물뿌리는 것 같은 處罰法으로(심한 물리적 처벌법은 不可) 쉽게 교정될 수 있으나, 소수예에 있어서는 舊習을 없애고 새 行習을 유도하기 위한 行習轉換訓練(counter-conditioning; 心理學者들은 이를 應答-置換(response-substitution)이라고 한다)을 시도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사료급여 전에 主人의 발목을 무는 行習이 있는 고양이의 行習을 교정하고자 할 때, 處罰法에 의해서 교정할 수는 있으나 심한 처벌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恐怖行習과 같은 원치 않는 나쁜 行習이 유발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行習轉換訓練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처벌을 하지 않고 主人이 食事때마다 초인종을 울리면 고양이가 의자와 같은 어느 物體에 뛰어오르게 하는 行習轉換訓練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훈련에 잘 순응할 때 마다 맛있는 먹이포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訓練이 완성되면 食事前에 主人이 발목을 무는 行習 대신 초인종 소리에 맞추어 의자위로 뛰어오르는 行習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다.

## X. 異常行習의 診斷

獸醫師가 動物의 行習에 관한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病歷을 정확히 청취해야 하는 것이며, 될수만 있다면 그 行習을 직접 觀察하



고 또한 家庭環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① 病歷을 청취할 때는 수의사는 부드럽고 다정한 자세로 畜主를 대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흔히 畜主는 동물의 不正行習에 대한 自責感을 가지거나 또는 특별한 교정방법이 없을 경우, 殺처분의 권유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하게 심문하면 不正行習에 관한 충분한 陳述을 畜主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것도 한 이유로 될 수 있다. 病歷의 聽取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i) 畜主가 생각하는 行習의 주된 問題點은?

(ii) 문제의 行習을 취하는 場所와 環境은?

(iii) 그 行習을 최초로 시작했던 날짜와 1日中에 行習을 취하는 시간은?

(iv) 어느 특정인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 行習이 나타나는지?

(v) 來院하기까지의 최종 세번의 行習發作에 관해서 자세히 묻는다. 특히 發作직전과 發作직후에 일어났던 일, 그 行習을 유발시키는 특이한 자극이 있는지의 여부, 그 行習이 있을 때 畜主가 어떤 대응(포상 또는 치료 등) 방법을 써왔는지 등.

(vi) 그 동물의 완전한 生活歷(life history)을 파악해야 한다. 즉 동물의 生年月日, 구입한 날짜와 장소, 그 動物의 親系, 兄弟姊妹에 관해서 알고있는 사항, 그 동물의 생애중에 일어났던 주요사건(異常行習의 年代的 전개과정), 한 집안의 다른 동물에 異常行習이 전달되는 순서 등을 파악한다.

(vii) 동물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특징적인 日課에 관해서 질문한다. 즉 동물이 거처하는 장소와 기상 시간, 그후 동물과 함께 하는 일들(이것으로 畜主가 동물을 돌보는 방법과 정도, 동물의 활동성의 수준, 동물의 1日 運動量 등이 파악됨), 畜主가족수와 각각의 연령,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동물 등을 파악한다.

(viii) 畜主가 그 이전에 다른 동물을 가졌던 經驗이 있는지?(경험이 없는 畜主는 異常行習을 非正常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동물의 訓練과정(훈련학교)를 거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성

적은?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이상과 같이 病歷청취를 진행하는 동안에 수의사는 동물의 자연스런 行動環境자극에 대응하는 姿勢, 畜主와 動物과의 行動교환 등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질의응답을 교환하는 사이에 동물의 基本行習이 들어나게 되어 나쁜 行習이 발견되는 수도 있고 또한 畜主가 집안에서 취했던 동물에 대한 대응行動이 그대로 再現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수의사는 동물을 훈련하거나 다스리는 畜主의 능력 또는 수완을 간파할 수 있다. 이때 동물의 行習에 대응하는 畜主의 잘못이 발견되면, 수의사는 그대안이나 적절한 方法(포상방법 또는 포상의 적절한 시기와 같은)을 畜主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病歷청취를 하는 동안에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나쁜 行習을 유발하게 하는 刺戟을 식별하는 것과 그 行習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일이며 또한 수의사는 畜主나 그 동물을 상대할 때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정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④ 동물의 異常行習의 유발이 畜主측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動物을 잠시동안 환경이 다른 곳으로 옮겨본다. 즉 친구나 친척에 동물을 맡기거나 또는 家畜病院에 入院시켜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약 1주일동안 異常行習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게 한다. 이때에 만일 異常行習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異常行習은 거의 모든 경우에(반드시 다그려한 것은 아니지만) 畜主의 존재와 관련된 일종의 習得行習(learned behaviour)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器質的病巢에 기인한 異常行習은 주위환경의 급변 또는 놀라움과 같은 stress에 의해서 억압되어 異常行習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異常行習의 診斷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異常行習은 불과 수일 동안 억제될 뿐이며, 그 동물이 바꾸어진 環境에 일단 적응되면 異常行習은 다시 나타난다.

⑤ 동물의 疾病상태는 그 동물의 行習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腎기능不全, 眞性糖尿病, 膀胱炎 또는 膀胱結石 등은 排尿頻度の 증가를 일으키고 동시에 排尿場所의 선택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 경우에 排尿行習에 異常을 일으켰던 原因이 성공적으로 治療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은 그릇된 排尿場所를 계속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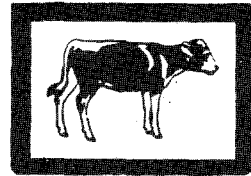
⑥ 畜主의 陳述은 原因을 밝히고 적절한 교정법 또는 治療法을 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家庭을 訪問하여 環境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그 行習의 發作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그 行習이 유발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訪問하는 동안에 設問紙를 주어 畜主로 하여금 문제된 行習의 發作時間, 場所 및 그 배경 등을 계속 기록하게 하는 것도 흔히 이용된다.

최첨단 수의요법

비특이성·바이러스성 면역촉진제(수입원제품)

# 두 파 문 注射

## (DUPHAMUN)



### ● 작용 기전

- (1) 식균작용의 증가 (Increase of phagocytosis)
- (2) 인터페론의 산생 (Interferon production)
- (3) 임파계조직의 자극 (Stimulation of the lymphopoietic system)

### ● 특장점 및 용도

- (1) 순수 바이러스로 제조되었으며 1 ml당 불활화된 아비폭스 바이러스...10<sup>7</sup>TCID<sub>50</sub> 함유
- (2) 과용량에 의한 부작용이 없어 어린가축 및 임신축에도 사용가능함
- (3) 가축의 호흡기 및 설사가 주 증상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

### 두파문주사의 소에 대한 임상성적

시행농장수	두파문을 투여하기 전 치사율 (%)	두파문 투여후의 치사율 (%)	나타난 질병의 양상에 따른 분류	
			호흡기증상	비율
134개 농장 (총 3,178두)	67% (90~134농장)	5.9% (8개농장)	호흡기증상	83.1%
			설사	11.1%
			식욕부진	0.2%
			열	31.1%
			불명	0.8%

\*서독 원한 수의과대학(1978·루퍼트 좀버 교수) 시행한 통계자료임.

제조원 **DUPHAR**

수입 판매원 **대일동물약품상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63-8, ☎ 925-0333~4